

## 복지현장 양극화 심각

노인·어린이분야 꾸준한 증가, 청소년·노숙인시설 감소  
위탁시설 선호 속 '사각지대' 방치... 전문가 양성 시급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7년만에 실태조사

지난 10여년 간 불교계 노인·아동·장애인 지역사회복지시설은 늘어난 반면 여성·청소년·노숙인 관련 시설은 현상유지에 급급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등 불교계 복지시설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연구소가 11월 1일 발표한 '불교사회복지기관 실태조사' 분석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지난 2월 부터 우편발송과 전화조사를 병행해 전국의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파악한 결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은 총 477개로 파악됐다.

1995년에 비해 382개소, 1999년에 비해 165개소가 증가한 수치다. 이중 아동 복지시설은 1995년 21개(22.1%)에서 2006년 142개(40.4%)로, 노인관련 시설은 11개(11.6%)에서 106개(27.0%)로 늘어나는 등 두드러진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여성·의료·상담관련 복지시설은 10여년 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 시설은 1995년 15개소에서 2006년 31개소로 시설수는 늘어났지만, 전체 사회복지시설 대비로 따지면 1995년 15%에서 2006년 6.5%로 줄어들었다.

노숙인 시설은 1995년 3.2%를 차지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겨우 1.7%의 시설만 남는 등 청소년·

노숙인 관련 시설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 여성복지 '바닥' 수준

특히 1995년 경우 전무했던 여성복지시설은 전체 시설 총수 대비 1999년 0.3%, 2006년 0.6%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이 10여년 간 양적인 성장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별 사업분야를 따져보면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총 477개 시설 중 전수조사에 응한 389개 시설의 사업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아동복지분야가 169개(31.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노인복지 129개(24.1%), 장애인복지 55개(10.2%)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의료복지분야를 실시하는 곳은 14개(2.6%), 여성복지분야는 11개(2.1%)에 불과했다.

양극화의 양 끝에 위치한 노인복지분야와 청소년·여성분야 시설 사업유형을 따져보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요양시설(20.3%), 주간보호시설(18.7%), 무료급식소(15.9%), 노인복지관(12.1%) 등이 고르게 운영되

는 반면 청소년복지시설은 공부방과 독서실이 대부분(60.4%)을 차지했고 결혼가정 청소년보호시설은 단 한

곳 뿐이었다. 여성복지분야 역시 상담소가 전체 중 가장 많은 30.8%를 차지했고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 1곳, 모자원이 1곳을 차지해 명백히 '편향'된 운영양상을 보였다.

불교계 복지시설 뿐 아니라 법인에서도 이러한 '편향'과 '양극화'는 발견된다. 총 107개로 파악된 불교 사회복지관련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노인복지가 22.0%, 아동복지 14.8%, 장애인복지 13.2% 순으로 목적사업이 나타났다. 역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여성복지(3.9%)였다.

#### 소외계층 '소외' 여전

불교계가 여성복지시설과 같은 소외된 시설운영을 외면하게 된 이유는 정부시책에 부합되는 복지분야에만 투자와 관심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맞물리면서 불교노인복지분야는 급물살을 타지만 여성이주노동자, 여성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결핍수준이다.

경도대학 사회복지학과 전보경 교수는 "2004년 교구 분할사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불교사회복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분야는 향후 관심대상에서조차 배제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우려하며 "소외계층과 사회빈곤층, 여성에 대한 복지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중 전체의

65.6%에 이르는 255개소의 시설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이고, 불교계 직영시설은 134개소(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위탁시설 비중은 종단별로 천태종이 100%, 진각종 80% 조계종 65.9% 태고종 60.0%인 것으로 드러났다.

#### 양적 팽창보다 인프라 구축을

개신교계 직영시설 비율이 79.7%(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조사 기준)에 이르는 등, 타종교계가 직영시설 비중을 늘리기 위해 힘쓰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70년대부터 꾸준히 복지를 통한 선교를 펼쳐온 타종교의 경우 직영시설을 조금씩 늘리는 등 사회복지인프라를 구축해왔다. 반면 복지분야에 뒤늦게 뛰어든 불교계는 정부의 복지시설을 위탁하면서 인프라 구축보다 양적인 성장을 꾀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 성장 뿐 아니라 불교복지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임혜영 선임연구원은 "정부위탁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불교계 복지시설에서 불교적 종교성을 직접적으로 구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향후 불교계도 정부위탁의 비중을 낮추고, 복지시설 다각화와 영역확장을 통해 균형적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11월 3~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첫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가 열렸다. 3일 열린 아동미술큰잔치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원 스님에게 매직풍선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 자비 가득한 세상 우리가 만든다

####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성황

불교사회복지인들의 축제인 '불기 2550년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가 11월 3~4일 서울 조계사 권역에서 개최됐다. 11월 3일 불교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아동미술큰잔치'로 시작해, 이틀간 '지속가능한 불교사회복지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및 학술세미나, 기념법회,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 불교사회복지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한 대회의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또 3일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된 불교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수훈사 효립원 대표이사 무구 스님,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총무기획과장 박은아씨, 연희복지의원 이경식 행정원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최준환 부장이 올해의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은비 기자

## “3년후 어린이법회 사찰 3배로”

### 포교원, 주지인사고과 반영 등 3개년 계획 내보

불자 청소년의 포교를 책임질 조계종 포교원 산하 어린이·청소년 포교팀 구성이 완료돼 본격적인 아동에 들어간다. 앞으로 3년 내에 현재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수를 3배로 늘리고 2만4천명의 어린이들에게 불교를 포교하겠다는 야심찬 3개년 계획도 내놓았다.

그간 어린이·청소년포교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법회는 전국 300여개 사찰에서 1천여명의 지도자 아래 약 1만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찰의 예산부족과 어

린·청소년법회 지도자의 부재, 법회관련 콘텐츠 부족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포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어린이·청소년포교팀은 3년간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도 및 조직 정비 △지도자 양성 및 관리 △어린이·청소년포교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교재 교구 개발 등 4개 분야를 육성·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세부계획도 잡았다. 오는 11월 11일 조계사권역에서 '어린이포교 전진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해 종단

안팎으로 어린이·청소년포교의 의미를 전명하는 한편, 연내로 어린이포교 관련 단체협의회를 구성한다. '찾아가는 법당' 프로그램도 올해 연말부터 가동된다.

'찾아가는 법당'은 (사)동원,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파라미터청소년협회 등 어린이·청소년포교 현장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사찰을 대상으로 '법회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 내년까지 총 12사찰의 어린이법회 개선을 도울 예정이다.

이어 2007년에는 어린이포교의 무화 및 주지 인사고과 반영을 입법화하고, 사찰 예산 중 일정비율을 어린이포교비로 책정토록 의무화하는 등 법령제정에 힘쓰고, 2008년에는 입법화된 종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도자 인력은행 및 권역별 지도자모임을 운영해 인력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이은비 기자

**보이차 紅茶園**  
전년보이차·전통차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n.com

**산문밖의 禪**  
최유현 자수장 17편  
중앙중화의원선거를보고 15편  
수행지도자에게 듣는 생활 속 수행, 어떻게? 18편  
불선사 강설대법회  
각성 스님 '해심밀경' 24~25편

시방세계 9편  
수도권사찰 학생법회 체육대회

경전수행음 통한 깨달음 10대 강역 초청  
**불선사 강설대법회**  
우룡 스님  
정토상부경/11월 11일  
불선사 설법전, 031)527-1951-3

**빛고를불교아카데미총계 4편**  
11월 8일 오후 7시, 수진 스님 '실상수도상'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대웅전 삼존불 점안식**  
석가모니불의 대각과 아미타불의 48대원, 약사여래불의 12대원을 통해 조계사는 대중과 함께하는 도량이 될 것입니다.

불기2550년 11월 14일 화요일

1부 : 점안식 (08:30-10:00)    증명법사 :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도림 법전 / 법주 : 조계종 어장 동주  
2부 : 봉불식 (10:00-11:00)    3부 : 헌공 (11:00-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83-4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